

네, 제공해주신 영상의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사주명리학의 개념 중 지지(地支)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 특히 합(合), 충(沖)을 기반으로 파생되는 해(害), 원진(怨嗔), 형(刑) 등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상세히 재구성하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강의 서두: 합(合)을 방해하는 원리, '해(害)'의 개념

강의자는 먼저 '해(害)'라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부터 설명합니다. '해(害)'는 글자 그대로 '해를 입힌다'는 의미로, 사주명리학에서는 주로 안정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불화와 배신, 시기, 질투 등을 유발하는 작용으로 해석됩니다.

강의자는 이 '해(害)'의 작용을 '이간질'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둘 사이의 좋은 관계를 제3자가 끼어들어 방해하고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자축합(子丑合)**과 **축미충(丑未沖)**의 관계를 들어 설명합니다.

- **자(子, 쥐)**와 **축(丑, 소)**은 본래 서로 아주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뭉치려는 힘, 즉 **육합(六合)**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이좋은 연인이나 끈끈한 동업자 관계와 같습니다.
- 그런데 이때 **미(未, 양)**라는 글자가 나타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축(소)**과 **미(양)**는 서로 정반대의 위치에서 강력하게 부딪히는 **충(沖)**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미(양)'가 운에서 오거나 상대방의 사주에 있으면, '미'는 자신의 충 상대인 '축(소)'을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이렇게 '축'이 공격을 받아 흔들리게 되면, 원래 '축'과 단단하게 결합하고 있던 '자(쥐)'와의 합(合) 관계가 자연스럽게 깨져버립니다.
- 결과적으로 '자(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미' 때문에 가장 친한 파트너인 '축'을 잃게 되는, 즉 '해(害)'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미해(子未害)**의 원리입니다.

강의자는 이러한 관계를 현실 세계의 삼각관계에 비유합니다. 잘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에 한 사람이 끼어들어 둘 사이를 이간질해서 헤어지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해(害)'의 관계는 단순히 다투고 끝나는 '충(沖)'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충'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이라 결과가 명확하지만, '해(害)'는 뒤에서 모략이 오가고, 믿었던 관계가 깨지는 배신감을 동반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뒤통수를 치는 인간'에 비유하며 그 파괴력을 설명합니다.

육해(六害): 6가지 해로운 관계와 그 작용

이러한 원리로 총 6가지의 '해(害)' 관계가 만들어지며, 이를 **육해(六害)**라고 부릅니다.

1. 자미해(子未害):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자축합을 축미충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2. 축오해(丑午害): 자축합을 자오충(子午沖)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즉, 오(午, 말)가 자(子, 쥐)를 공격함으로써 자축의 합이 깨지는 원리입니다.
3. 인사해(寅巳害): 인해합(寅亥合)을 사해충(巳亥沖)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사(巳, 뱀)가 해(亥, 돼지)를 공격하여 인(寅, 호랑이)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4. 묘진해(卯辰害): 묘술합(卯戌合)을 진술충(辰戌沖)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진(辰, 용)이 술(戌, 개)을 공격하여 묘(卯, 토끼)와의 관계를 해칩니다.
5. 유술해(酉戌害): 묘술합을 묘유충(卯酉沖)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유(酉, 닭)가 묘(卯, 토끼)를 공격하여 술(戌, 개)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6. 신해해(申亥害): 사신합(巳申合)을 사해충(巳亥沖)이 깨뜨려서 발생합니다. 해(亥, 돼지)가 사(巳, 뱀)를 공격하여 신(申, 원숭이)과의 관계를 해칩니다.

강의자는 이러한 '육해'가 사주 원국에 있거나 운에서 들어올 때, 해당 육친(가족, 배우자, 동료 등)과의 관계에서 배신, 구설수, 건강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특히 궁합을 볼

때 상대방과 나의 일지(日支)가 '해'의 관계에 놓이면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진(怨嗔): 미움과 원망의 관계

다음으로 '원진(怨嗔)'에 대해 설명합니다. 원진은 '원망하고 미워한다'는 뜻으로, 서로를 이유 없이 미워하고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자미(子未) 원진: 쥐는 양의 배설물을 싫어하고, 양은 쥐꼬리를 보면 병이 난다는 속설에서 유래합니다.
- 축오(丑午) 원진: 소는 발을 가는데 말이 옆에서 놓고 먹는 꼴을 못 보고, 말은 소의 되새김질하는 모습을 추하게 여깁니다.
- 인유(寅酉) 원진: 호랑이는 닭의 짧은 꼬리를 비웃고, 닭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잡아먹힐까 봐 싫어합니다.
- 묘신(卯申) 원진: 토끼는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를 흉보고, 원숭이는 토끼 눈이 빨개서 싫어합니다.
- 진해(辰亥) 원진: 용은 돼지의 시커먼 코를 흉보고, 돼지는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아니꼽게 봅니다.
- 사술(巳戌) 원진: 뱀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싫어하고, 개는 뱀의 긴 혀를 징그러워합니다.

강의자는 원진 관계가 마치 '전생의 악연'과 같아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를 미워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궁합에서 원진이 있으면 부부 사이에 불화가 잦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는 원진의 특징을 "헤어지지도 못하면서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라고 정의합니다. 헤어지려고 하면 보고 싶고, 막상 만나면 싸우게 되는, 애증이 반복되는 고통스러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주말부부처럼 물리적으로 떨어져 지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형(刑): 조정과 처벌의 관계

마지막으로 '형(刑)'에 대해 다룹니다. '형'은 형벌, 수술, 조정, 다툼 등을 의미하며, 주로 관재구설이나 건강상의 문제를 암시합니다.

- 인사신 삼형(寅巳申 三刑):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배은망덕(背恩忘德)의 형살로, 주로 권력이나 명예와 관련된 다툼에서 발생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던 관계에서 배신이 일어나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자는 이를 총, 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에 비유하며, 교통사고나 큰 수술수 등 갑작스러운 사고의 위험이 가장 큰 형살이라고 설명합니다.
- 축술미 삼형(丑戌未 三刑): '세력을 믿고 함부로 군다'는 지세지형(持勢之刑)으로, 주로 세력 다툼이나 집단 내의 갈등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거나, 파벌 싸움에 휘말리는 등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 자묘형(子卯刑): 무례지형(無禮之刑)으로, 예의 없는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문제나 자식과의 갈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강의자는 사주에 '형살'이 있는 사람은 그 기운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인사신 삼형이 있다면 군인, 경찰, 의사, 법조인 등 사람의 생명을 다루거나 법을 집행하는 직업을 가지면 그 흉한 기운을 직업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전 적용 및 해석

강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실제 사주(자신의 사주로 추정되는 예시)에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 사주 원국 분석: 자신의 사주에 어떤 글자들이 있고, 이것이 '해', '원진', '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신(申)'과 '해(亥)'가 있다면 신해해(申亥害)가 성립하여 인간관계에서의 배신이나 구설을 겪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 대운과 세운의 영향: 특정 운(대운이나 세운)이 왔을 때, 사주 원국에 있던 '해'나 '형'의 글자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신(申)'이 있는데 '해(亥)'년이면, 신해해의 작용이 실제로 발현되어 그 해에 관련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亥)'년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예로 들며 설명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 사건 발생 시기 예측: '해'의 관계가 '합'이 '충'에 의해 깨지는 원리임을 다시 상기시키며, 사건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인해합(寅亥合)이 사해충(巳亥沖)으로 인해 깨지는 '인사해(寅巳害)'의 경우, '사(巳)'운이 올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운에서 오는 글자가 어떤 글자와 상호작용하는지를 통해 사건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론

강의자는 결론적으로 사주에서의 '해', '원진', '형'은 모두 인간관계의 갈등과 고통을 상징한다고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사주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삶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령, 원진 관계의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형살의 기운은 전문적인 직업을 통해 긍정적으로 승화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